

2026. 08. 09 주일예배 · 마 12:1-21 / 막 2:23-3:6 / 눅 6:1-11

필요와 탐욕 사이

본문 · 마태복음 12:1-21

우리는 인생의 필요를 두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땅한 필요에 따른 기도인지, 내 마음 안의 탐욕에 따른 기도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이 정당한 필요인지 인간적인 탐심인지, 직업적 성취와 사회적 영향력을 향한 열망은 어떠한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불임을 직면한 부부, 소송에 휘말린 성도, 영적 능력을 구하는 일까지도 그렇습니다. 오늘 안식일 논쟁을 통해 우리 안의 숨은 동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1 안식일 논쟁의 재구성

어느 안식일, 제자들이 몹시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삭을 자르는 것을 추수로, 비비는 것을 타작으로 보고 즉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 가지 논리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선례입니다. 굶주렸을 때 진설병을 먹은 일을 들어 위급한 필요가 의식적인 법보다 우선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음을 들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셋째는 자비의 원칙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호세아 6장 6절로 하나님의 참 뜻을 강조하셨습니다.

막 2:27-28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 회당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고 발할 구실을 찾으려 엿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병자를 한가운데 세우시고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분노하여 헤롯당과 결탁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금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실현되고 생명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2 율법의 참 의미와 안식일의 주인

그렇다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법을 어겨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수천 개의 세부 규칙, 곧 미쉬나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억압하는 날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기 위한 선물입니다.

노동 금지라는 조문보다 **자비와 생명 구원이라는 상위법**이 우선합니다. 규정을 어기는 듯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의 기준은 누가 세웁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편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규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최종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의 필요와 욕망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자비와 뜻입니다.

3 예수님이 세우신 세 가지 기준

첫째, **위급한 필요**입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취미나 영리가 아니라 시장하여 일어난 일이었고, 다윗도 사흘을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영리 목적의 노동은 금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굶주림을 해결하고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구하고 질병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의 자비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둘째, **선행과 생명 존중**입니다. 기준은 그 일이 생명 보존에 불가피한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가입니다.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비를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길이며, 고통받는 자를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의 영광**입니다.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것은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겉대기만 남은 원칙 속에 생명이라는 알맹이를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4 누구를, 어디까지 도와야 합니까

성경은 상대의 태도나 자격, 과거의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자비와 생명 존중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저주하는 원수라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해와 비를 주시고, 우리 역시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도, 상대가 나에게 하는 만큼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떻게 대하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생명은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가족으로 품는 것이 복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친 것도 부정을 피하려는 형식 때문이었고, 복음에서 가장 멀어 보이던 사마리아인이 도리어 가장 복음적이었습니다.

다만 도움의 영역과 규모는 분별해야 합니다. 돕는 것이 그 사람의 악행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형태라면 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비의 영역과 범죄에 동조하는 것은 반드시 분리해야 하며, 돕겠다는 것이 무조건적 허용은 아닙니다. 상대를 진정으로 위하는 교정의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FOR OUR GROUP

함께 나누는
적용 질문

5 우리의 구함에 적용하기 — 동기·과정·결과

첫째, **순수한 동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형에게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 한 요청은 합법적이었어도, 동기에 탐심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눅 12:15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곳간을 열고 더 크게 지으려던 부자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입니다. 신앙적인 것에도 탐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시몬은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동기는 오직 자신만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당한 과정**입니다. 생명의 잉태와 출산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며,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요 상급입니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갈망은 선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배아가 폐기된다면 동기가 선행도 창조 질서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듯, 우리에게는 입양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셋째, **주의 영광과 이웃의 덕**입니다. 사사기 말기에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려는 순수한 의분으로 모였고 하나님께 묻는 절차까지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는 멸절 직전까지 갔습니다. 동기도 순수했고 과정도 정당했지만, 감정이 개입되면서 사랑과 자비가 결여된 열매를 맺었습니다. 원칙주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에 나옵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결론 — 구하기 전에 내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동기는 순수한가, 과정은 정당한가,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이기적인 정욕에서 온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에서 온 것인지 살피십시오. 그러나 동기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선행도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지 과정을 점검하고, 그 갈망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 논쟁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이며, 그 마음을 아는 길 또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기도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청이 순수한 동기에서 나왔는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인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일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Q1

[말씀 듣기 전] 나의 삶 돌아보기

요즘 내가 하나님께 가장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할 때 나는 **필요와 탐욕** 중 어느 쪽에 서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Q2

[말씀을 통한 깨달음] 나의 상태와 그 말씀

오늘 말씀 중 어떤 구절이 내 마음을 찔렀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나의 **동기·과정·결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Q3

[말씀 받은 후] 묵상과 적용 나누기

마태복음 12장 1~21절 말씀 묵상과 그 말씀의 적용을 나눠주세요.

이번 주 함께 기도할 제목
